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2024. 12.

울 릉 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목 록

연번	답변자	제 목	질문의원
1	군 수	울릉군 장기발전 방안	최병호
2	〃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해결방안 및 복지혜택 현황	최병호
3	〃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방안	최병호
4	〃	공공빨래방 도입 계획	최경환
5	〃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실태와 개선방안	공경식
6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	홍성근
7	안전건설단장	자연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계획	홍성근
8	미래전략과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	홍성근
9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대책 및 향후계획	홍성근
10	보건사업과장	울릉형 건강증신서비스 도입방안	한종인
11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의 농업발전방안 및 스마트팜 농업 계획	최병호
12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홍성근
13	〃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공전 등록 추진현황	홍성근
14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방안	홍성근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군 수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최병호 의원
제 목	울릉군 장기발전 방안		
질문요지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우리군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면서 관광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장기 발전방안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남 한 권입니다.

-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민과 공감하고 희망 담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뜻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선 8기가 3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새희망! 새울릉!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없는 존경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번영과 희망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여러 위기와 도전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리한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1차 산업의 위기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가능성과 희망을 엿봅니다. 다양해진 해상 교통망이 사계절 관광을 가능케 했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울릉공항이 개항된다면 지리적 불리함이 해소됨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2028년 이후 울릉공항이 본격 가동되면 서울에서 이동 소요시간은 단 1시간으로 접근성 향상과 공항개항의 특수에 따라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용객, 총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6천명 이상의 취업유발을 각종 언론보도과 연구자료를 통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도약은 우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마냥 낙관적일 수 만은 없습니다.
  부족한 인프라의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준비없이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면 오히려 지역산업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 기본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숙박, 교통, 환경, 에너지, 규제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까지 해결해야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손을 본다거나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방향성과 전략적 비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우선, 올해부터 추진 중인 K-관광섬 사업의 일환인 슈퍼 하이킹 페스티벌, 솟솟클럽, 웰니스 요가 프로그램, 야간포차 등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기대하기에 충분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각종 프로그램들은 섬을 한바퀴 도는 단순 투어형태의 관광에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 에메랄드 울릉도의 색을 입힌 관광 방향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울릉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위스, 뉴질랜드와 같이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의 무한성을 보여줍니다.

- 하이킹, 트레일, 해양레저, 요가, 야간 버스킹 등 검증을 마친 자연체험형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에메랄드 페스타를 계획하겠습니다. 더불어 파크골프와 같은 스포츠관광에 주목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재 방문율을 높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머무르기 좋은 곳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관광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단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일주도로3, 사동항3단계사업, 공공용 택지개발 등 기반사업은 물론 신규 관광케이블카 설치, 매립을 통한 공항배후 관광단지개발, 나리 치유숲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포함한 장기 대형사업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의 종합발전계획과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잘 녹여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울릉도 규제프리존, 관광특구, 글로벌 미래특구, 국유림 사용권한 이양 등 우리군의 더 큰 성장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유와 군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시대, 100만 관광시대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최병호 의원
제 목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해결방안 및 복지혜택 현황		
질문요지	지역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해결방안과 복지혜택 현황		

【답변내용】

- 다음은,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해결방안 및 복지 혜택 현황”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 유일의 의료기관인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 중심의 의료인력과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군인, 경찰 등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1차 진료와 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 지속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함께

- 작년에 정형외과 전문의 채용을 시작으로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확보로 인해 이전보다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의 응급실을 포함한 외래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해 내년도 신규 공중보건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이러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울릉군 근무(연장 포함)를 유도하고자 복지포인트(기본 1,300포인트)를 전국 최고로 지급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건당 10만원) 또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응급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후송을 위한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에 대한 심도있는 배후진료 전문의 확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한 응급실 의료장비 현대화로 응급의료에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자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경북권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사가 근무해야 하는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료공백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무엇보다 의료취약지인 울릉군에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더불어 인센티브 그리고 주거 등 다양한 지원책이 어우러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먼저 울릉군청 뒤 전 농협 관사와 민간 주택을 임대해서 우선 제공하고 울릉군의회 뒤편에 건립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관사를 신축하는 중에 있으며,

- 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도서 근무수당과 진료 수당 등의 인센티브 도입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장기휴가제도 운영도 검토하여 섬 지역 적응 및 진료관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응급환자 후송지역 인근 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 · 운영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의료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라는데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외적인 의료환경 변화를 계기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공중보건의 수급문제 해결방안 및 복지혜택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최병호 의원
제 목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 방안		
질문요지	직제 개편 후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 답변요청		

【답변내용】

-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 방안”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 1월 1일 및 2024년 7월 8일 기준 두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행정운영 및 현실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다양한 행정환경 및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국가적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 군 역점시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서는 국(局) 직제와 독도박물관 사무장 및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5급 부서장 직위 2개를 감(減)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4년 7월 8일 조직개편에서는 안전과 복지 및 산림관광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서 간 업무·기능을 재배치하였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팀장 직위 2개를 감(減) 함으로써 조직의 슬림화 및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소규모의 부서와 팀을 다수 운영하기보다 업무·기능 재배치를 통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정원 증원이 힘든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지역 현안 사업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증원 재배치함으로써 군 역점시책 사업에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구 개편 또는 직제·정원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보인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기 위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이런 일련의 과정이 최근 2년 내 두 번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의 휴직과 전출 그리고 의원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시인사로 인해 업무 담당자의 전보가 빈번히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대규모의 조직개편보다는 개편된 조직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필요시 부서별 업무조정을 단행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최경환 의원
제 목	공공빨래방 도입계획		
질문요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빨래방 도입이 시급 이에 따른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은?		

【답변내용】

-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빨래방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를 위해 2020년도에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사업이며, 각 읍면사무소, 복지관 등 빨래방 설치공간이 확보되면 빨래방 운영을 통해 이불빨래 수거와 세탁된 이불을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 또한 지자체마다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취약계층 및 1인가구의 특성상 협소한 주거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제품 구비가 어려워 이불 등 대형세탁물의 세탁 및 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빨래방 도입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며 빨래방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취약계층에게 빨래를 해결할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대의 욕구에 맞추어 군민의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현재 우리군은 공공빨래방은 없으나 울릉군이동편의증진센터(옛명칭 지체장애인협회)에 중형세탁기(17kg, 21kg) 2대, 건조기(9kg)1대, 기타 세탁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센터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내년부터는 부활시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우리군의 공공빨래방 도입은 설치공간 마련, 전담인력 채용 등 지역여건상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좋은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투자 지원 등도 고려해 보겠으며, 기존 사업을 잘 활용하여 지역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울릉형 찾아가는 이불빨래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매월 신청을 받아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사회단체, 자원봉자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형이불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 세탁취약계층의 고민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또한 빨래수거 및 배달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낡은 이불은 후원 등을 통해 교체할 새이불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청결한 침구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세탁물 수거를 통해 주민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이 행복한 복지울릉 만드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빨래방 도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공경식 의원
제 목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실태와 개선방안		
질문요지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실태와 정산 현황,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답변내용】

-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실태와 개선방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3종류로서 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과 노후 차량 대·폐차 지원 보조금, 유류비 및 교통카드사용 지원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며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보조금의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 전반을 2014년부터 외부 전문 회계법인 감사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재정지원 부담이 커지는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는 상승하는 데 반해 버스 수요의 감소로 운송수익금은 줄고 있어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 둘째,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입니다. 그간 군정 질문이나 의원님의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군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외부 회계감사 실시, 현금자동계수기 설치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장기간 계속되어 온 보조사업자의 경영악화의 타개에 있어서는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셋째, 차량 노후화 심화 등 재정지원 효과가 서비스의 향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노후화 문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 이어서 문제들에 대한 울릉군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농어촌버스 사업의 운영형태 및 보조금 지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어촌버스 사업은 재정지원형 민영제입니다. 즉, 사업의 주체는 ㈜무릉교통이고 우리 군은 면허권 설정자로서 군민의 교통이동 복지 달성을 위해 운영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 여타 지자체의 농어촌버스 사업 운영형태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통해 직접 자문하고, 특정 지자체에서 있었던 지역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고한 결과입니다.

- 군이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농어촌버스 사업이 시작한 이래로 준공영제, 위탁운영, 자부담 등 민영제와는 맞지 않는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오면서 군정과 운수회사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해당 사업에 관해 꾸준히 제기된 의혹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를 토대로 보조금에 대한 회계 검증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 업무 기준을 명확히 삼아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군 대중교통의 미래 변화·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길잡이로 삼아 체계적인 미래 사업구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선·요금·환승 시스템·배차 간격 조정 등 서비스 개편을 통한 버스 수요 제고 방안 및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로의 운영 전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재정지원 관련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 조례제정으로 보조사업자의 관리의무와 우리 군의 역할을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수단의 발달, 여행 수단의 변화, 인구소멸 등으로 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은 우리 군만이 아닌 많은 지자체에서 공통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료 버스 정책,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로의 전환 등 운수사업의 수익성보다는 교통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사업 동향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 점차 수요가 감소하여도 버스는 여전히 군민의 발로서 존재해야 하기에 안전한 버스, 편리한 버스가 군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버스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내년에는 무료 버스 정책을 추진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릉교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실태와 정산 현황,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군 수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현황		
질문요지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준비 사항 및 추진 현황		

【답변내용】

- 끝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과정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올해 1월16일, 각고의 노력 끝에 비로소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어 우리를 포함한 34개 도서가 함께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도서민들이 혜택을 보게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 법의 취지는 국토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의 초행 단계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 또한 지난 10월21일 입법 예고하였고 조만간 제정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에서 밝힌 추후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지침을 정하여 2025년 3월31일까지 통보하고 이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2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2026년부터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령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5억원을 투입, 직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 발주하여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각 시군의 희망사업을 직접 조사하여 3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쳤으며 올해 12월 26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또한, 내년 3월경 시도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9월경 제1차 종합발전계획(안)을 완성하고 섬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됩니다.

-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되며 정주여건 조성, 주민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현행 국고보조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대 80%까지 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복합 대피시설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통합상수도 시설공사(3단계), 복합환승터미널 조성, 나리분지 치유의 숲 조성 등의 대형 시설사업과 해상운송비 및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안정 지원, 군민 의료경비 지원, 도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약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도서벽지 공무원 수당 인상 및 내항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 완화,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총 11건의 규제 완화 및 특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합발전계획 수립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안 전 건 설 단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안전건설단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계획		
질문요지	현재 수립 중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모든 재해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 포함 필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계획”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릉군에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08.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공공시설 16건, 사유시설 11건 등 총 8억 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예비비 14억원을 긴급편성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조기 복구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에 많은 비가 울릉읍 지역에 집중되어 공공시설물이 파손되고 주택 침수, 도동시가지 토사유입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울릉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복구활동에 매진하여 빠른시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추석 연휴 귀향객 및 관광객들을 차질없이 맞이할수있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재해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울릉군의회와 군, 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각 사회단체를 포함한 울릉군의 모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단위에서 예상되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우 · 풍랑 · 해일 · 대설 가뭄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 우리군은 2017년에 10년단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비구조적 저감대책 12건 15억원, 하천재해・사면재해・해안재해 등 구조적 저감대책 15건 824억원으로 수립하여 사업 시행 현황은 73.3%로 전국 30% 시행율 대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잦은 국지성 호우 태풍의 대규모화 등 자연재난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재해예방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등 기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2023년 1월부터 울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관련실과 협의,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사면 계측관리 계획수립 등 37건 170억원,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9개분야 42개소 3,053억원으로 수립하여 2024년 10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2024년 10월 21일 울릉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경상북도 관련 실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난 10월과 11월 중 사동1리 아랫구석마을 일대에 대규모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설물의 긴급복구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심의 요청 전 지반침하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또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관련 조사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기후조건 등이 급변하여 재해 위험요소를 발견 시 즉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금번 수립중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수립 후 라도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및 변경함으로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누락되어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계획”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미 래 전 략 과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미래전략과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		
질문요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 3 유형이 있으며, 울릉군은 1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하여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지원확대와 규제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 선정 시 미래있는 그린아일랜드 울릉을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매력적인 교육, 가고싶은 학교, 살고싶은 지역을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예산에 대한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예산으로는 매년 최대 30억원씩 교육부에서 교육특별교부금이 교부됩니다. 이에 울릉군은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영어·스포츠·진로 캠프 등의 기존 사업을 확대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교육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여 군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울릉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2.0 지정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생존수영과 생태교육 등 지역특색을 살린 섬마을 체험교육,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한 미래핵심산업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예산을 신규로 투자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제도적인 부분은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제도를 상향식으로 특례를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검토 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울릉군은 특례로써 대학특별전형입학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취업이 연계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 열악한 대중교통여건으로 인한 통합·통학버스 지원과 함께, 지역의 불합리한 교육여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자격과 정원 등 교원 관련 규정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울릉군의 불합리한 교육환경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교육, 가고싶은 학교, 살고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미래전략과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대책 및 향후 계획		
질문요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내용】

- 이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 총 10년간에 걸쳐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 주거・복지・의료・문화・관광 등 생활인프라 조성(하드웨어)과 기반시설을 활용한 정주・생활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울릉군은 2022~2025년도까지 31,238백만원을 확보하여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완료한 1개 사업을 이어 3개 사업이 2025년 내 준공 계획이며, 4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모든 기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편성하되, 대규모 사업에 재원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추어 우리 군도 중장기적 관점의 다년도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사업의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보니 사업 초기에는 예산 사용이 적거나 아니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지연 요인들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금집행에 만전을 기하며, 지역 특색을 강조한 전략 수집과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소멸 대응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지역에 활기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지원 방향 및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보 건 의 료 원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보건의료원	질문의원	한종인 의원
제 목	울릉형 건강증진서비스 도입 방안		
질문요지	울릉군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		

【답변내용】

- 존경하는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울릉형 건강증진 서비스 도입” 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6%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료제공자가 개입되는 급성질환 대응 체계로 대응하기보다는 식이조절, 운동, 스트레스 조절 등 환자의 자기 주도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향후 보건업무의 핵심적 역할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 서울시 “손목닥터9988” 과 같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 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환자들의 질환 인식 및 관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다른 지자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행 후 건강행태 개선, 건강위험요인 감소 등 전반적으로 확연한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됩니다.

- 그래서 서울 손목닥터 9988 전용 앱 만큼의 건강서비스 제공은 어렵더라도 타 지자체 및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울릉도 실정에 맞는 모바일 건강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져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건강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농 업 기 술 센 터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질문의원	최병호 의원
제 목	우리 군의 농업발전 방안과 스마트팜 농업 계획		
질문 요지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과 우리 군의 농업발전 방안		

【답변내용】

-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과 우리 군의 농업발전 방안”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영농 불리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여건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력의 유입 부족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생산량과 생산액 등 전체적인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나리분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사도가 심한 경작지로 인해 농업기계화율이 낮고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산채 수확시기의 일손 부족 문제, 취약한 가공산업 기반 시설, 해상을 경유하는 불리한 물류 여건과 산채 연작장해, 기후변화, 산채 종자의 관외 유출로 인한 내륙의 산채 재배 면적 확대 등 2중, 3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우리 군 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책으로 농업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를 활용하여 전문 농업연구사 중심으로 육묘 기술, 재배 관리 등 귀농인에 대한 영농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 및 영농 상담을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겠습니다.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나물 수확기 등 중소형농기계 발굴과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기계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일손 중개센터를 통한 외부 노동인력의 적시 공급으로 농업인들이 산채 농사에 필요한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아열대 작물을 대상으로 시험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군 농산물의 주된 제품은 1차 생산물인 건채, 생채와 단순 가공품인 절임류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전문 농업연구사 중심으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가공창업인 양성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인 와인 등 주류와 분말, 만두, 잼, 즉석 가공식품 등 다양한 가공 식품개발과 민간기술 이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채 연작 피해 대책으로 토양검정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산 작물인 산마늘, 부지갱이 등 대규모 작물뿐만 아니라 마가목, 매실나무와 고추, 마늘 등 소규모 재배작물에도 병해충 방제와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지도에 필요한 농촌지도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 울릉도 산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채 종자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19월 울릉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 '종자반출 방지' 농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농업인 자정운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자반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여 우리 군 산채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취나물, 산마늘에 이어 물엉겅퀴를 대체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기 쉽고, 맛이 좋으며, 약성이 우수한 물엉겅퀴 재배와 관련 지난 11월 27에서 29일까지 울릉도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물엉겅퀴가 대체 작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음식화' 필요성과 홍보와 유통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식회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스마트팜은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농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스마트팜에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에 스마트기자재를 설치하여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아열대 작물 등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팜이 있고, 건축물 내에 LED등을 광원으로 해서 스마트기자재를 설치하여 수경 분무 형태로 상추 등 일반채소를 재배하는 수직형스마트팜 형태인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에 사업비 8억원으로 132㎡(40평)규모의 재배사 2실과 기계실로 구성된 식물공장을 2024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식물공장은 운영은 상추 등 잎채소와 고소득 작물인 고추냉이(와사비) 근경(뿌리)재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험 재배를 통해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고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기술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을 축적한 후 단계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운영과 우리 군의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질문요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체계 마련 필요		

【답변내용】

-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인식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농업인이 오랜기간 동안 농경행위로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 활동과 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촌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하며,

-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을 시작으로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가까지 현재 18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 그중 2017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된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은 고립된 화산섬의 척박한 급경사지에 발전된 밭농업시스템으로 축분과 퇴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산채재배 뿐만 아니라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지역 주민들의 전통지식과 문화가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울릉도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은 '18년～'20년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5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50백만원,
  북면 나리에 설치된 밭농업시스템 조형물 설치에 250백만원,
  농업유산 탐방로 조성 2개소(깃대봉, 대풍감지구)에 450백만원,
  농업유산 홍보관 조성에 300백만원,
  농업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용역에 100백만원,
  농업유산 가치분석조사 용역에 100백만원,
  주민역량강화 현장교육에 50백만원,
  농업유산 아카이브 책자 제작에 50백만원,
  농업유산 홍보용품 제작에 50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 먼저 사업 시행 과정 중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의 적정한 보전・관리・활용을 주민이 체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 하였으며,

- 또한, 급경사지의 농경지를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기술 및 울릉도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모습 등 울릉도의 화산섬 밭농업을 위한 주민들의 지혜와 생활모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카이브 책자를 제작하여 화산섬 밭농업 홍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였습니다.

- 다음은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에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시스템 홍보관 및 나리분지 홍보 조형물을 상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 농촌여행정보포털(웰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운영) 등 각종 누리집과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사랑 매거진 겨울호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또한, '12.04일부터 12.22일 까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국가중요농업유산 학술조사 결과 보고전'에 섬(울릉) 숲(울진) 그리고 마을(상주)이라는 주제로 농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보고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 향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규모화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전·활용 가치가 높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우리군 소규모농가들의 전통농법과 지식, 농업문화, 농촌경관 등의 가치가 농촌 활력 및 소득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처럼 앞으로도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시스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후속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중요농업유산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상하수도사업소

제283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답 변 자 료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질문의원	홍성근 의원
제 목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하수처리장의 전문인력 부족과 관리 운영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 해결 방안		

【답변내용】

-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7년 준공한 나리하수처리장과 2020년 남양하수처리장 2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인수인계중인 태하하수처리장 및 시운전중인 천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나리 하수처리장은 DBS(Denutrient Biosoption System, 생물흡착) 공법으로, 구조 및 공법 특성상 관리 전문인력 상주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인력 운영상 불가하였고 이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2번의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았습니다.

- 현재 구조 및 공법 등 시설물 전면 개량을 위해 금년초 국비를 확보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이 완료되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장은 3명의 직원으로 관리·운영중이며, 태하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업무, 기타 행정업무 병행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천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수처리장 운영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기존의 관리체계에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운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해 2019년부터 조직 담당부서(총무과)와 협의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 18회 채용공고 하였으나 2023년 1명 채용후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전문기관에 관리대행용역 등의 시행으로 하수처리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